字舞

-성수무·영성소무를 중심으로-

Jamu (The Dance Forming Letters, 字舞)

-focused on Seongsumu and Youngseongsomu-

송정은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Jeong-Eun Song(scusje@hanmail.net)

요약

현재 매우 미비한 자료만이 남아있는 한국전통무용의 자무(字舞)를 주변 국가(중국)의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학문적으로 재조명, 그 구성원리의 고찰을 통해 독특한 전통 고유 콘텐츠로의 발굴하여 현시대에 맞는 무대예술공연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중국의 ‘성수무’는 140명의 무용수가 “성초천고(聖超千古), 도태백왕(道泰百王), 황제만년(皇帝萬年), 보조미창(寶祚彌昌)”라는 16글자를 이용해 관객을 향하여 표현되도록 춤으로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현대의 매스제임과 매우 비슷한 양상과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국의 『영성소무보』에는 천하태평(天下太平) 글자를 만들며 추는 춤인 ‘영성소무(靈星小舞)’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는 매우 미비한 자료(高麗史 卷25)만이 남아 있는 고려 문종 때의 천하태평(天下太平) 글자를 쓰며 추는 춤인 한국 자무인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계기로, 차후에는 현재 미비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 전통무용의 자료를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에 존재하고 있는 관련 문헌 자료 탐구와 연구를 통하여 잊어져 가고 있는 한국 전통예술의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자무 | 성수무 | 영성소무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historically and academically shed new light on Jamu(字舞) to which there is little reference now on the basis of reference of neighboring country (China), to discover traditional unique contents by considering constituting principles, and to use these data to inherit and develop Jamu as a stage performance which is suited for the present ag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s follows. The first, Seongsumu was made up of the dances making 16 letters-“Seongchocheongo(聖超千古), Dotaebaekwang(道泰百王), Hwangjemannyoun(皇帝萬年), Bojomichang(寶祚彌昌)” - by 140 dancers. Made letters were intended to face audiences and this is similar to group gymnastics of today in the aspect and form stakes.

The second, it is thought that Youngseongsomu the dance making Cheonhataepyeong(天下太平) and recorded in 『Youngseongsomubo』 of China is related to ‘Wangmodaegamu(王母隊歌舞)’ the dance making Cheonhataepyeong(天下太平) during the Moonjing rule and recorded a little in The History of Goryeo, 25 volumes (高麗史 卷25).

With this study as a momentum, continuous study is needed on Korean traditional dance inherited barely today in order to develop new various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arts which are being forgotten by studying and researching related references in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 keyword : | Jamu | Seongsumu | Youngseongsomu |

접수번호 : #110214-006

심사완료일 : 2011년 05월 09일

접수일자 : 2011년 02월 14일

교신저자 : 송정은, e-mail : scusje@hanmail.net

I. 서론

글로벌 시대의 세계 각 국은 새롭고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자국의 문화 보존·발전이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도 타문화의 수용은 물론 전통문화의 원형복원과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 및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의 문화전쟁 속에서 우리문화가 당당히 맞서 경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다.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발굴을 통해 고유한 전통문화예술 콘텐츠로 발전시켜 세계 속에 우수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 시켜야 한다. 이것은 곧 경제, 사회, 정치 등에 영향을 미쳐 세계의 문화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전통예술 콘텐츠 중 전통무용에 대한 기록 또한 시급히 발굴·연구해야 할 대상 중 하나이다. 사실 무용을 포함한 연희되는 공연예술 장르가 가지는 시간예술의 특성상, 기록을 통해 잘 보존되어야 하지만 이 중요성을 인지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무 중 그나마 문헌자료로 남겨져 있는 궁중무와 연희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 실연·복원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부족함이 있다. 이에 부족한 부분은 중국과 일본 등의 주변국 관련 문헌과 역사적 자료를 통해 고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남아있는 기록 자료가 매우 미비하여 고증을 통한 원형 그대로의 복원과 실연에는 부분적인 문제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전통무 중 하나인 자무(字舞)에도 해당된다. 자무(字舞)에 기록과 문헌자료가 매우 미비하여 오랫동안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1999년 11월, 국립국악원에서 우리나라의 마지막 궁중무용가인 古 김천홍옹에 의해 재현을 시도하였다. 국가의 번영과 태평을 구가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현대적인 감각과 무대적인 요소, 시각적 형상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 40명의 무용수로 축약, 재구성하여 한번 간략하게 재현하였으나[2] 고증 문제와 그 밖의 여건적 상황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古 김천홍옹이 실연을 시도하였던 자무(字舞)인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는 고려 문종 31년(1077년) 2월

을미의 연등회에 55명의 무용수들이 “군왕만세(群王萬歲)”, “천하태평(天下泰平)”의 글자형태를 이루면서 만드는 춤으로 공연하여 장관을 연출했다는 기록[8]이 있다. 이 춤은 주역을 바탕으로 국가와 황제의 성수무강을 기원하는 춤으로 현재의 매스게임 형식의 성격을 띤 춤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왕모대가무’에 대한 내용은 고려 문종 31년에 주어진 이후에는 다시 주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기록은 남아있지만 홀기 또한 전쟁 때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기록이 사라지면서 없어진 우리나라 전통춤의 발굴과 재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나라의 자료를 통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전통무용을 고찰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전통무용의 역사를 주변 국가들과의 영향 관계 안에서 재조명해 보려는 학문적 관심으로 관련된 자료를 찾던 중 명(明)나라 때 주재옥(朱載堉)에 의해 편찬된 『악률전서(樂律全書)』의 ‘영성소무(靈星小舞)’에서 “천하태평(天下泰平)”이라는 자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중국의 자무인 ‘성수무(聖壽舞)’가 중국 당나라 고종 때 “성초천고(聖超千古)·도태백왕(道泰百王)·황제만년(皇帝萬年)·보조미창(寶祚彌昌)”의 16글자를 춤으로 주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자무인 ‘영성소무’와 ‘성수무’ 속에서 한국의 자무인 ‘왕모대가무’에 대한 상호연관 관계와 영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기록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자무인 ‘왕모대가무’ 대신 중국의 자무의 기록 중 『진양악서』에 나오는 ‘성수무’와 『악률전서』에 ‘영성소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구성 원리를 검토, 고찰하여 <자무>라는 전통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왕모대가무’의 완벽한 복원은 힘들지만 <자무>라는 전통 콘텐츠의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무대화가 가능한 지를 연구하여 전통춤의 새로운 재현과 창작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또, 현 시대에 맞는 독특하고 새로운 무대예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한계를 둔다.

II. 본 론

1. 악서(樂書)

송대 1103년에 휘종에게 헌정된 『악서』는 진양이라는 사람이 40여년에 걸쳐 중국 역대의 음악 이론과 악기, 춤과 노래를 그림과 함께 상세히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역작으로 20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양의 『악서』는 가장 광범위하면서 포괄적으로 편찬된 대표적인 송나라의 음악이론서로 중국 음악의 역사와 이론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음악문헌으로 동양의 음악 학계에도 알려져 있다.

진양은 북송말의 북주 사람으로 자는 진지(晉之)이다. 생몰 연대는 1040(+30)~1110(+30) 무렵이며, 미종대(1100~1125)에 태상박사겸비서성정자(太常博士兼秘書省正字)와 예부시랑(禮部侍郎)등을 지냈다.

진양의 『악서』는 중국 고전의 음악 기사에 대한 훈의로 1권에서 95권까지는 『예기(禮記)』·『주례(周禮)』·『의례(義禮)』·『시경(詩經)』·『상서(尙書)』·『춘추(春秋)』·『주역(周易)』·『효경(孝經)』·『논어(論語)』·『맹자(孟子)』, 등의 경전에서 음악에 관한 기사를 뽑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다, 96권부터 108권까지는 기본 황종율관(黃鐘律管)을 비롯하여 12율(律)·5성(聲)·8음(音)에 대한 음악 이론적 설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9권부터 150권까지는 아부(雅部)·호부(胡部)·속부(俗部)로 분류하여 악기, 노래, 춤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놓았다. 151권에서 164권까지는 노래 가사로 구성되었으며, 165권에서 184권까지는 춤 기사에 관한 내용에서 춤을 아악(雅樂)·호악(胡樂)·속악(俗樂)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185권부터 200권까지는 길예(吉禮)·흉예(凶禮)·중예(鍾禮)·군예(軍禮)·가예(嘉禮)의 오예(五禮)를 서술하여 한족(韓族) 음악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의 민족음악인 악(樂)뿐만 아니라 예(禮)도 아울러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5]

진양의 『악서』가 처음으로 휘종에게 헌정된 시점은 1103년인데 이후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100년이 지나도록 간행되지 못했으나 1200년에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이후 원대(元代)·명대(明代)·청대(清代)에 간행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대인 1876년에

방공혜(方功惠)의 주선으로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 국립국악원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삼산진선생악서서(三山陳先生樂書序)에서 『악서』의 문헌적 가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멀리는 당기삼대(唐旗三代) 시대로부터 가까이는 한(漢)·당(唐)·송(宋)에 이르기 까지, 위로는 육경(六經)에서 아래로는 역사와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설까지, 그리고 안으로는 오가(五家)의 제도에서 밖으로는 오랑캐의 것까지 흠어지고 잃어버린 것을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서, 정위지성(鄭衛之聲)을 제외하고 아악(雅樂)으로 통일했으며, 오늘의 것을 인용하여 옛것으로 돌아가게 하였도다. 사람들에게 음악의 논의를 음미케 하고 그림으로 익히게 했으니, 문덕 선왕시절(先王時節)에 금종(金鐘)과 천구(天球)의 소리가 좌우에서 울리고, 찬란하게 전대의 오우(鶯羽)로 꾸민 옥척(玉戚)의 모습이 전후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났도다. 후에 책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야(野)에서 구하거나 기송(杞宋)에서 고증하지 않더라도 덜도 더함을 알 수 있을 것 이로다[7].” 이렇듯 진양의 『악서』는 음악이론과 악부·호부·속부의 악기도설에 한정하지 않았고, 중국고전의 음악기사 훈의와 노래·춤·잡곡·오례에 관한 의의를 폭 넓게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음악사연구 및 음악이론 연구와 더 나아가 동양음악문화사연구에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왕조 초기의 음악사연구 및 음악이론 연구에도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문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다가 세종(1418-1450)시대에 음악이론가 박연 등 여러 유학자들은 임우(林宇)의 『대성악보(大晟樂譜)』,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 『주례도(周禮圖)』 [10]등과 같은 중국문헌과 함께 진양의 『악서』를 그 어느 책보다 많이 인용하였다. 또, 성종(1469-1494) 시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이론서인 『악학궤범』 편찬 때에도 진양의 『악서』를 포함한 14종의 중국문헌의 음악기사가 편찬자들에 의해서 33회라는 가장 많은 횟수를 인용하였다.

2. 자무(字舞)

2.1 성수무(聖壽舞)

중국 송나라 때 진양이 쓴 『악서』에 기록된 성수무를 살펴보면 성수무는 흥정사고전서(欽定四庫全書) 악서권일백팔십(樂書卷一百八十) 악도론(樂圖論)중 속부(俗部)의 무(舞)중에 파진무(破陣舞), 경선무(慶善舞), 대정무(大定舞), 상원무(上元舞), 성수무(聖壽舞), 광성무(光聖舞), 연악무(燕樂舞), 장수무(長壽舞), 천수무(天授舞), 만세무(萬歲舞), 용지무(龍池舞), 소파진무(小破陣舞)등 12종의 춤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성수무는 황제의 장수와 수복강녕을 기원하는 춤으로 중국 당나라 고종 때 무후가 성수악무를 만들었으며 140명의 무용수가 동관과 오색화의를 착용하고 춤의 행렬을 글자로 만들면서 추는 춤이다. 그 춤의 글자는 “성초천고(聖超千古), 도태백왕(道泰百王), 황제만년(皇帝萬年), 보조미창(寶祚彌昌)”등 16자를 만들며 그 뜻은 “도는 백왕보다 크도다. 황제는 만년토록 운수가 더욱 창성하리라”라는 내용이다. 또한 “선왕이 악(樂)을 지을 때 6번 변하고 그치는 것도 있고, 8번 변하고 그치는 것도 있으며, 9번 변하고 그치는 것도 있는데, 16번이나 변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또한 대악을 잃은 것은 아니니 반드시 주의의 뜻”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欽定四庫全書 樂書卷一百八十 宋陳旸撰

樂圖論

俗部

舞

破陣舞 慶善舞 大定舞 上元舞 聖壽舞 光聖舞
燕樂舞 長壽舞 天授舞 萬歲舞 龍池舞 小破陣舞

唐高宗武后作<聖壽樂舞>, 用百四十人, 銅冠五色畫衣, 舞之行列, 必成字, 凡十六變而畢. 有‘聖超千古, 道泰百王. 皇帝萬年, 寶祚彌昌’之字. 然先王作樂, 有六變而止者, 有八變而止者, 有九變而止者, 未聞有十六變者也, 不亦失大樂, 必易之意邪[7].

성수무는 140명의 무용수가 “성초천고(聖超千古), 도

태백왕(道泰百王), 황제만년(皇帝萬年), 보조미창(寶祚彌昌)” 16글자를 만들며 춘 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성(聖)자에 대한 자무(字舞)를 재구성하여 보았다.

기본적으로 객석을 바라보며 무용수가 서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성수무의 춤 순서도 천자전초세(天字轉初勢), 천자전반세(天字轉半勢), 천자전주세(天字轉周勢), 천자전과세(天字轉過勢), 천자전유세(天字轉留勢), 천자전정세(天字轉定勢), 천자주세(天字住勢), 천자궤세(天字跪勢), 천자배세(天字拜勢), 천자성세(天字成勢)의 순서로 춤을 추지만 여기서는 16글자를 모두 나열할 수 없어 첫 글자인 성(聖)을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성(聖)자를 파자하여 구성하면, 귀(耳)는 54명, 입구(口)는 32명, 임금왕(王)은 54명으로 모두 140명으로 도열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聖

귀(耳)	입구(口)	임금왕(王)
01번 - 12명	07번 - 08명	11번 - 14명
02번 - 09명	08번 - 08명	12번 - 15명
03번 - 06명	09번 - 08명	13번 - 08명
04번 - 06명	10번 - 08명	14번 - 17명
05번 - 09명	= 32명	= 54명
06번 - 12명		
= 54명	* 총140명으로 구성하였다.	

2.2 영성소무(靈星小舞)

영성소무는 중국의 제례에 쓰이던 무용으로 『악률전서(樂律全書)』 권 28에서 권 30에 실린 영성소무보(靈

星小舞普)를 통해서 파악된다.

영성사아악천하태평자무절조지도(靈星祠雅樂天下太平字舞綴兆之圖)는 묘호지신(貓虎地神), 사방지신(司坊之神), 사농전준지신(司農田畯之神), 선택신농지신(先嗇神農之神), 전성지신(田星之神), 토성지신(土星之神), 금성지신(金星之神), 수성지신(水星之神), 화성지신(火星之神), 목성지신(木星之神), 곡성지신(穀星之神), 농성지신(農星之神), 사색후직지신(司嗇后稷之神), 사우표철지신(司郵表畷之神), 수옹지신(水滂之神), 곤충지신(昆蟲之神)에게 제사를 지내며 제품(祭品)을 갖추어 놓고 양쪽에 악사들이 연주를 하며 그 안에서 천하태평(天下太平)의 글자를 만들며 추는 자무(字舞)로 무용수의 동작이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樂譜卷 三十)

그림 2. 영성사아악천하태평자무절조지도
(靈星祠雅樂天下太平字舞綴兆之圖)

아래 [그림 3] 우측에 지발자치어운오곡수성창름풍영풍조우순천하태평(持拔者致語云五穀收成倉廩豐盈豐調雨順天下太平)이 쓰여 있으며 그 뜻은 ‘발(拔)을 들은 자가 치어(致語)하고 바람이 순조롭고 비가 적당하여 풍년이 들어 오곡을 거둬들여 창고가 가득하여 천하가 태평하다’라는 뜻이다. 좌측에 좌일인운천하태평자무현제일자무일인운무자취위(左一人云天下太平字舞獻第一字舞一人云舞字就位)는 ‘좌측에 한사람은 천하태평 자무의 첫 번째 자를 올립니다’라고 하니 ‘우측의 한 사람은 춤추는 자는 각 위치로 가시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樂譜卷 三十)

그림 3. 지발자치어운오곡수성창름풍영풍조우순천하태평
(持拔者致語云五穀收成倉廩豐盈豐調雨順天下太平)

[그림 3]을 보면 무용수 모두 북향을 향해 춤을 추며 북향의 좌우에 각각 한명씩 발을 들고 있다. 첫 자세는 북향으로부터 남행을 향해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 10열, 11열, 12열, 13열, 14열, 15열, 16열 두 명씩 8열로 서서 16명이 도열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을 든 2명을 포함하여 18명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 4]는 영성소무보(靈星小舞譜)[4]에 기록된 천(天)자의 자무보이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춤을 추는 사람에게 춤동작과 자세들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樂譜卷 三十)

그림 4. 천자전초세(天字轉初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5. 천자전반세(天字轉半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8. 천자전유세(天字轉留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6. 천자전주세(天字轉周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9. 천자전정세(天字轉定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7. 천자전과세(天字轉過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10. 천자주세(天字住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11. 천자궤세(天字跪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12. 천자배세(天字拜勢)

(樂律全書 三十)

그림 13. 천자성세(天字成勢)

- [그림 4] 천자전초세(天字轉初勢): 처음 도는 자세
 [그림 5] 천자전반세(天字轉半勢): 절반으로 도는 자세
 [그림 6] 천자전주세(天字轉周勢): 한 바퀴 도는 자세
 [그림 7] 천자전과세(天字轉過勢): 돌아가고 있는 자세
 [그림 8] 천자전유세(天字轉留勢): 머무르는 자세
 [그림 9] 천자전정세(天字轉定勢): 천자를 만들며 돌아와서 정리하는 자세
 [그림 10] 천자주세(天字住勢): 천자를 만들기 위해 정지하는 자세
 [그림 11] 천자궤세(天字跪勢):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그림 12] 천자배세(天字拜勢): 엎드려 절하는 자세
 [그림 13] 천자성세(天字成勢): 천자를 모두 완성한 자세로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영성소무보(靈星小舞普)’에 관해 모두 수록할 수 없어 천하태평 중 ‘천(天)’자로 만든 작대도만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영성소무보’를 통하여 천하태평(天下太平) 글자를 만들며 추는 춤은 현 기록으로 남아 있는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의 천하태평(天下太平) 글자를 쓰며 추는 춤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나 춤 구성의 내용은 명확치 않은 것은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고증해야 할 것이다.

III.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중국의 자무인 ‘성수무’는 140명이라는 대규모의 무용수가 “성초천고(聖超千古), 도태백왕(道泰百王), 황제만년(皇帝萬年), 보조미창(寶祚彌昌)” 16글자를 통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추어진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각 글자의 모양이 관객을 향하도록 한 구성이 현재의 군무형태인 매스게임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오히려 더욱 더 방대한 스케일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둘째, ‘영성소무보’에서 천하태평(天下太平) 글자를 만들며 추는 춤은 한국의 자무인 ‘왕모대가무(王母隊歌舞)’의 천하태평(天下太平) 글자를 쓰며 추는 춤이었다는 것과 분명 관련이 있

다고 사료된다. 이 두가지 결론을 통해 한국의 자무가 중국과 연관성을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 없는 전통무의 기록들을 중국의 관련자료를 통해 복원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하였다.

위의 중국의 자무(字舞)인 ‘영성소무보’의 ‘천’자만으로도 천자전초세(天字轉初勢), 천자전반세(天字轉半勢), 천자전주세(天字轉周勢), 천자전과세(天字轉過勢), 천자전유세(天字轉留勢), 천자전정세(天字轉定勢), 천자주세(天字住勢), 천자궤세(天字跪勢), 천자배세(天字拜勢), 천자성세(天字成勢)의 등의 여러 구성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성(聖)자에 대한 예를 재해석을 하였듯이 차후 나머지 다른 문자들로도 더 많은 다양한 자무의 구성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자무개발을 통한 우리만의 새로운 전통 콘텐츠로 새롭게 창작을 해 낼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타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자무의 전통적 구성양식을 현대적 무대화를 통해 전통을 각색한 새로운 콘텐츠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콘텐츠 개발의 실행 단계인 실제 공연장으로서의 실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적 연구가 동시에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더욱 더 많은 관련국의 문헌들을 찾아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문헌 탐구와 역사적 물증 자료와 관련국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의 연구는 전통 그대로 재현은 물론 다양한 창작개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옛 전통춤사위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맞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4] 載堉, 樂律全書, 文淵閣四庫全書,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72, pp.347-356, 1983.
- [5] 정화순, “陳鳴의 學問과 樂觀”, 韓中哲學, 제2집, pp.147-151, 1996.
- [6] 황경숙, “한영속춤에 내재된 미적특질”,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7권 제1호, p.296, 2009.
- [7] 國立國樂院, 樂書 卷第一白二十一~二百, 韓國音樂學 資料叢書, 國立國樂院, 1982.
- [8] 高麗史 卷 25.
- [9] 文獻通考 卷 148.
- [10] 世宗實錄, 世宗 12年,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저 자 소 개

송 정 은(Jeong-Eun Song)

정희원

- 1989년 2월 : 세종대학교 무용학과(학사)
- 1996년 2월 :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석사)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서울기독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2005년 : 국제골든 카라고즈 민속 무용경연대회 우승(터키)

- 2010년 : 한국미래춤학회 대상 수상

<관심분야> : 무용교육학, 전통무용학, 예술경영

참 고 문 헌

- [1] 김광락, 譯註 增補文獻備考, 韓國音樂學術叢書 3, 國立國樂院, 1994.
- [2] 김천홍, 呈才舞圖笏記 唱詞譜, 민속원, 2003.
- [3] 이영진, 김약수, 문화재조사업문, 학문사, 2000.